

인터뷰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문화적 창의·감성 더한 뉴콘텐츠 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과 같은 응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창의적인 활동에 나서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지역의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취업·창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만났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도의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크게 3가지 일을 하고 있다.

첫째, 전남이 가진 다양한 관광·역사·문화자원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현대적 지역 특화 콘텐츠로 만들고 이를 브랜드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산업·조선·해양·농어업 등 지역의 전략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하 ICT)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즉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

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VR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자원 융복합을 통한 지역콘텐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지역형 성공 콘텐츠가 다수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을 이어지도록 하는 시설로 열린 콘텐츠 창작과 교류의 공간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인력양성지원도 활발하다고 하신데?

-진흥원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취·창업 준비생들을 대상



관광·역사·문화자원에 디지털기술 접목 브랜드화
취·창업 준비생 대상 다양한 ICT·콘텐츠교육 운영
지역 게임산업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마련 구축 주력

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가상현실(이하 VR)·증강현실(이하 AR), 드론,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등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맞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반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VR·AR·MR 등과 같은 응용기술에 전남의 문화적 창의성과 감성을 더한 뉴콘텐츠 산업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를 배경으로 오프라인 공간과 디지털기기가 결합된 AR 빅 게임 콘텐츠 ‘리얼월드 여수’를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며 영광 노을전시관·칠산타워, 목포 자연사박물관 등 전남도 내 문화자원과 연계해 가상 관광시뮬레이션 콘텐츠 공간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주주한 나주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순천 콘텐츠코리아랩을 중심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활력

으로 분야별 연령별에 따른 다양한 ICT 및 콘텐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VR·AR 콘텐츠, 게임콘텐츠, 해양관광 및 드론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 있다.

빛가람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소프트웨어(SW) 및 ICT분야 창업교육도 진행 중이다. 또 청년뿐만 아니라 시니어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 창업교육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창작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비창업자로 선발 시 체험형 창업실습교육부터 아이템 시장검증, 사업화 지원까지 3단계의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남도 내 장애인들과 연계해 전통 공예품을 해외로 역직구하는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종합 쇼핑몰 이베이를 통해 국내제품을 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판매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자상거

래에 대한 교육과 전통공예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영문 번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갈수록 게임산업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활동은?

-전남은 전남글로벌게임센터를 중심으로 VR·AR 기술 기반 체험형 게임을 특화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체험형 게임산업이 개화단계는 아니어서 이에 따른 국내 시장장출과 해외 판로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체험형 게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대만과 중국시장인데, 대만의 경우 아케이드 게임의 강국으로 올라섰고 그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첨단 기술이 접목된 게임의 유통과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시장의 경우도 모바일 게임은 물론 가상현실VR·AR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 제품을 해외로 역직구하는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종합 쇼핑몰 이베이를 통해 국내제품을 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판매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자상거

역까지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전남 진흥원의 목표와 향후 계획은? -전남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은 지난 10년 동안의 준비와 노력을 통해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들며, 정보통신과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인프라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수도권 기업과 지역기업이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련된 결과물이 해외로 다양하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ICT와 콘텐츠 분야가 젊은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하기에 가장 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발굴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권역별 거점 육성을 통한 삼각벨트를 구축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을 위한 단계적인 성장을 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매일 TV kjdaily.com (방송뉴스)

“지구에 잠시 여행 왔어요”

유·스퀘어 청년작가 김하슬 개인전...8일까지 금호갤러리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하슬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김하슬 작가의 개인전 ‘환영(幻影)_일기’를 개최한다.

김하슬 작가의 작품은 채색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을 재해석해 지구에 잠시 여행 온 지구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작품 속에 이야기를 그려낸다. 전시에서는 강렬한 색감의 평면회화를 인상 깊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작가의 작업형태와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작품의 이야기의 시작은 현재의 삶과 죽음이 긴 여행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결국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머물 수 없으며 지금의 삶은 종착역이 아닌 잠시 들리는 간이역이 아닐까라는 질문에서 작업이 이어진다.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상징적 이미지,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김하슬 작 '고백'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제공

인간의 모습과 우주를 배경으로 재미있게 구성되며 작가의 상상력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김 작가는 “죽음 뒤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곳에서 잠시 여행을 온 것뿐”이라고 말한다. 사실적인 표현 보다는 순간의 감정들을 스케치하며 수 없이 그려낸다. 작가는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인간의 감성을 복합적으로 표현한다.(전시 문의 062-360-8436) /정겨울 기자winter@kjdaily.com



지난해 열린 ACC 시민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ACC 제공

ACC 시민오케스트라 참가자 모집

내달 8일까지 접수

장롱 속 깊숙이 묻어둔 악기를 꺼내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올해도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국민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고 음악 동호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한 ‘2018 ACC 시민오케스트라’의 참가자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ACC 시민오케스트라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는 2016년 시작해 올해로 3회차를 맞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생활예술축제를 넘어 음악을 통해 전국의 생활예술음악인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꿈의 무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음악을 전공했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은 음악인이나 악기를

배운 경력이 3년 이상 된 아마추어 음악인으로 중학생 이상이면 국적으로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ACC 주최, 아시아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ACC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8일까지 전자우편(acc-orch@aci-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에 대한 선발은 서류 심사, 오디션 등 2차에 걸쳐 진행되며 3분 내외의 자유곡을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지원자들은 다음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로 연습을 하며, 11월4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겨울 기자winter@kjdaily.com

名品 연우 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사용하여 맛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가공했기 때문에 굴비 고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061.356-3888

경매 - 직접가서 보고, 만져보고, 상성한 참조기만을 수확 경매를 통해서 매입

선별 - 크기 및 무게 등으로 선별하여 분류하는 작업

세척 - 굴비를 이물질이나 비닐을 깨끗한 물에 3~4회 세척하는 과정

건조 - 세척한 굴비를 양방향성으로 허브 바람에 건조하는 과정

포장 - 최고급 칠기독함 세트, 아이스팩, 택배용 보호시트 포장

포장 - 최고급 칠기독함 세트, 아이스팩, 택배용 보호시트 포장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南道の魂

자연의 흐름을 담은 제철 식재료는 어떤약보다 귀하고 소중한입니다.

▶ 한정식 1인 :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